

한통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한국통신노동조합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강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길컴(02-2272-7114)



2면-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노동계에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짧게는 지난 5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어떤 부분은 이어지겠지만 또 일부는 새로운 정책들이 모색되고, 그에 따라 노정관계·노사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각 부분의 변화가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사측의 조직개편 시도 막아내



지난 23일 전국조합간부 결의대회에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조직개편 저지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조의 신속한 대응과 조합원 단결력 보여줘

지난 5일 사측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본부 이하 지사, 지점을 현행체제 유지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같은 날 정의대책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3면>
회사측의 조직개편 내용은 기존 부사장실과 비상계획실, 조달본부 폐지하고 품질경영실과 비전경영실, 사업협력실 등을 신설했다. 또한 마케팅기획본부 등 6개 본부의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10개의 지방본부와 현업기관은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본부 이하 지사, 지점의 유지는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신속한 대응과 노동조합 간부 및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낳은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 회사측이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날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긴급회의 열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조직개편 저지투쟁은 23일 전국조합간부 결의대회,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의발생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회사측은 27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본부와 현업기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노동조합에 임시대의원대회 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장의 외출출장 중 통보가 확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의발생을 결의하고 정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회사측에 이용경사장의 확대와 문서화를 요구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비상계획실과 조달본부 및 기타 조합원의 재배치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고용불안 조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재식 위원장 인사말

투명하고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달 8대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안정화 되기도 전인 지난달 사측이 조직개편을 시도했고 노동조합과 협의의 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리과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어찌 노사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취임초기 조합원동지여러분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쉽게 투쟁을 결정하지 않겠지만 투쟁에 나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반드시 투쟁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며 또한 끝까지 가서라도 승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조직개편저지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며, 몇몇 조합간부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3만 7천여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단결과 지지 그리고 뜨거운 애정에서 비롯된 승리입니다.

2003년은 민영KT원년이자 민영화이후 처음으로 맞는 임단협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측은 민영화를 맞아 수익극대화를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 및 임금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 및 임금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의 지지와 힘을 믿고 당당하게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교섭은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보인이란 명목의 밀실교섭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노동조합이 출범하자마자 조합간부상을 발표하고 조합간부에게 기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조해왔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 3년 임기동안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대의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의원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 꼭 참석해서 8대 노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실도 깊게 토론해주시고 의결해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산 배달호 열사 분신

정부의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가 부른 결과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자의 분신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의 패배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9일 새벽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급여, 퇴직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리던 배달호(50) 조합원이 분신했다. <관련기사2면>

그의 분신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선례가 없는 일방적인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직후인 2001년 1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1124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잘라나갔다. 이에 2000년 7500여명이던 직원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1년에는 6270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사측은 민영화 작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2001년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가 소사장제 실시를 요구하자 또 다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은 3개월 동안 파업을 통해 소사장제 철회를 관철시키고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2002년에도 사측의 탄압

은 계속됐다. 2001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집단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다시 47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47일 파업으로 61명이 고소·고발된 상태고, 해고 18명을 포함해 89명이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한 가압류 금액이 65억원, 부당노동행위자가 21명, 조합비 및 급여 가압류자가 63명에 이른다.

두산중공업은 5월 22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이후 6개월 넘게 무단휴 상태에 있었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단결 일방해지'는 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데서 민영화는 출발한다. 수익구조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수반되는 민영화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힐게 뻔하기 때문이다.

KT 또한 민영화 원년을 맞는 올해 주주의 극대화와 방인의 약화로 조직개편을 시도하려 했다. 다행이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막아내기는 했으나 사측의 조직개편은 유보된 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약화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려 할 것이다.

3면: 3월 6일~8일 전국대의원 대회 개최 예정

한통노조 당당한 8대 집행부 출범

64.4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지재식위원장과 7대 이동결위원장의 이취임식 및 조합창립 21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6일 분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 등 각급 연맹, 노동조합 대표자를 비롯한 외부인 KT 이용경 사장, 그리고 전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에서 지재식 위원장은 "지금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조합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8대 집행부를 낳았다.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조합간부가 당당한 자세와 실천을 해야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대중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결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7대 집행부는 2000년 총파업, 114분사투쟁, 민영

화투쟁 등 많은 투쟁들을 이끌어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 여러분께 맡긴다"며 "8대 집행부는 7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용경 사장은 "민영 KT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위해서 모든 사항을 노동조합과 의논하여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지방본부의 추천을 받은 18명의 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8대 집행부의 모범조합간부 선언을 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의 낭독으로 전국 지방본부, 지부장이 함께 존경받는 조합간부, 당당한 노동조합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선언하였고, 현장 속에서 당당한 노동조합 실현을 결의했다.

2003년 전국 대의원 명단

대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광복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0명)

김복 이종영, 김종성 노원 강재은 도봉 민재홍 공평 최일규 방학 조철래 고양 김창규, 이창주 파주 이진구 덕양 오인규 일산 김선호 광진 박종국, 이호순 중랑 송병희 성수 박용열 광화문 김용위, 홍성진 흥례 김홍만 구리 고관석, 신재식 가평 이정환 남양주 김순영 양평 박경선 퇴계원 최희근 동대문 구자철, 장익훈 전농 유경규 행당 김중열 중앙 이복만, 박봉기 을지 김용대 신촌 한명희, 안병창 아현 최정규 원효 김재준, 윤삼섭 여의도 조현식 용산 손진환 은평 송정길, 전영복 가좌 김용만 의정부 진병태, 이원용 동두천 한귀영 포천 정성길 권국 이음도 동의전 한정화 해화 이희창, 배이원 성북 김경주 청량 박경수 월곡 이두희 객센터 문덕구, 신종근 강북강건실국 김봉환 무선국 홍익표 전진국 이영구 강북본부 최용기, 박종은, 이만우

■ 강남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6명)

강동 여성순, 박영배 고덕 이강섭 서초 나경택, 배성식 과천 김중운 송파 유정주, 송병우 가락 최영근 신사 문철규, 이충수 반포 이기홍 영등포 이학래, 김성태, 박동현 양재 이종철 수서 민낙기 남수원 한창성, 신영호 보림 유기수 오산 이상철 동수원 유영조, 염태산 수지 남대성 용인 조성범 수원 오은호, 이홍민 서수원 정성환 평택 정우필, 이은화 송탄 유원성 안성 윤세실 강남강건실국 이천의 강남본부 이관의, 강인석, 반한성 객센터 박종일, 최광수 분당 박노일 수내 천명규 경광주 전영환 이천 이문연 여주 한홍성 성남 김연태 모란 류보현 하남 황효창

■ 서부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51명)

구로 김기정, 홍남표 금천 김명길 남인천 정경석, 이종원 주안 김천기 만수 진영범 동작 김인관, 박재경 대방 김문배 관악 유성훈 부천 김준구, 이창영 동부천 박성기 중동 김동영 북부천 김성기 부평 조일환, 민형식 계산 김요철 서인천 김윤철 석남 안상훈 김포 이현용 강

■ 본사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6명)

조달본부 한대웅 정보시스템본부 임종태, 오근희, 정호진 서울전산국 황종욱 경기전산국 김석희 부산전산국 김철준 대구전산국 최우봉 전남전산국 김주수 충청전산국 이재민 연구개발본부 김용범, 박익순, 이순호 통신망관리단 김순근, 허경호, 노일철, 문종호, 홍성규 서울위성 심교철 용인위성 유영도 인재개발원 김구현 운용시스템연구소 이윤찬 통신망연구소 정원권 통신망건설국 조미원 서울통신망 안길운 남서울통신망 박건영, 김영근 대전통신망 김순현, 최장복 부산통신망 신준호 대구통신망 박병태 광주통신망 김명호 전주통신망 황정택 원주통신망 최진남 안동통신망 이원락 강릉통신망 최제현 진주통신망 이정석 제주통신망 김형균 국제전화국 임인숙, 김정욱 국제대만용국 이경호, 조철형 인터넷운영국 서순석, 임동철 금산위성 서관영 부산해지 김태선

■ 강원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24명)

원주 안승호, 전인태 횡성 엄도열 영월 홍철희 평창 한두성 춘천 박홍순, 이기영 철원 박희천 화천 황원중 양구 조대원 인제 이신식 홍천 박철호 강릉 권혁용, 이근재 정선 정영국 속초 이영수 양양 김창수 고성 최기중 삼척 이의진 동해 우창기 태백 이준근 강원망건설국 최성태 객센터 노병덕 본부 김국환

■ 부산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1명)

객센터 김재구 동래 김기준, 유희운 금정 김석득 미남 고원배 김

사 이문석 양산 서부기 부산 이명현, 백병기 영도 임옥정 연산 이기학 수영 박종태 해운대 정홍근 기장 김남호 이미 박정만 사하 박순호 범일 김재식, 정운보 대연 배영수 가야 김형태 부산진 조태원 사상 정영석, 최상현 구포 손희준 강서 박연술 울산 김진재 북울산 전영래 동울산 김동현 남울산 강태기, 박세일 언양 이길원 부산 이인수 창원 김정명, 이영근 진해 임철호 송마산 정봉순, 조희호 마산 순천배 창원 주영철 합안 남동현 의령 송의주 진주 강영석 남강 이호성 남해 김지수 삼천포 정해준 산청 김광희 사천 조수동 하동 이상석 함양 오영열 김해 김명석, 김우용 밀양 황진환 통영 박진성 거제 김명철 고성 최재상 거창 김재경 합천 박지용 부산망건설국 광하영 부산본부 노홍열, 황건규, 안병영

■ 대구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8명)

대구 배우일, 한호섭 서대구 이영태 성서 이자용 성주 임치환 중대구 허인택, 김정업 남대구 김근주, 전대현 고령 노규승 봉덕 박순목 월배 안호철 달성 신인희 북대구 김학석, 신동현 철곡 이준형 군위 송의진 왜관 박만호 수성 이상균, 변우영 상동 김영수 포항 안영태, 백명기 울릉 김재현 북포항 여성동 영덕 최진환 울진 남송동 구미 김명규, 이현철 김천 박명서 상주 박종범 안동 김시동 청송 김성삼 서안동 이현원 의성 박만후 경산 석정규 청도 박정원 영천 김희태 하양 황성훈 영주 김창진 봉화 최재은 문경 김성우 예천 김남주 경주 김정훈 건설국 순성수 객센터 최대열 대구본부 손창영, 이송철

■ 충청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33명)

대전 이현숙, 김경환 동대전 연규환 용전 백관기 신탄진 김명일 서대전 이정호, 임경택, 황성순 논산 김봉섭 연무 김경호 금산 김용근 둔산 서문수, 한금수 북대전 임재현 공주 김성길 조치원 박수원 천안 박준순, 유동근 남천안 신일우 아산 정성덕 서산 박명선 당진 임내수 태안 이승규 홍성 서서도 예산 박명서 청양 윤용준 부

어 김의태 보령 김남경 서천 경규팔 충남본부 김지현, 서창원 객센터 정성배 충남망건설국 박종훈

■ 충북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18명)

청주 김석운 상당 북진경 증평 오도수 진천 장민철 괴산 안광국 남청주 박상순 서청주 오성태 가경 서광원 보은 이광배 옥천 박성하 영동 박희삼 충주 남대제 음성 박덕근 제천 김효경 단양 이명준 본부 이성이 충주 정운래 객센터 최동선

■ 전남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0명)

광산 김성철, 김원종 장성 김규근 광주 탁성진 곡성 임재진 동광주 신영수 화순 윤경환 나주 정영민 영광 오기용 함평 이경재 북광주 류철용, 오오철 담양 김병근 서광주 정옥채, 조영래 남광주 김성규 상무 김명용 목포 김명복, 김성수 무안지부 정영근 영암 김재진 하양 정광주 순천 임종태, 김진욱 고흥 정재순 구례 이원규 보성 최동환 광양 류준용 여수 유희열, 조문석 여천 정승훈 해남 이남식 강진 임광택 완도 김광주 장흥 김현민 진도 김인철 객센터 김효중 전남망건설국 오진모 전남본부 조지호, 윤창균

■ 전북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22명)

전주 임인희, 김희배 북전주 안인기 남전주 전제대 동전주 이국원 익산 이희용, 김순호 김제 이다득 정읍 이광욱 부안 유창종 고창 송석호 남원 이경택 임실 김성광 순창 한오현 무주 임정택 진안 진갑성 장수 이서구 군산 신환근, 허희상 전북본부 안동훈 전북망건설국 서철용 객센터 김재희

■ 제주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명)

제주사업단 지광호, 영영준 제주 김용주 신제주 고영현 서귀포 고종건 성산포 고형석